

■ 불량계란 유통구조
 양계농가 7곳 → 계란 가공업체 2곳 → 제과업체 3곳 → 30개 대리점·대형마트 → 전국 소비자 (전남지역) (광주) (광주·전남·전북)

불량계란 1500만개 9년간 전국 유통

대장균 기준치 최대 5배 이상 검출... 빵·과자로 팔려 수입업자 중국산 저질 콩 42t 국산으로 바꿔치기도 광주 남부경찰, 가공업체·양계업자 등 무더기 적발

대장균으로 범벅된 불량계란을 유통한 업자들과 저질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밀수업자들이 경찰과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폐기처분해야 할 불량계란 1500만개(914t)는 원가를 절감하려던 제과업체로 넘어가 빵과 과자로 만들어져 대형마트 등 전국으로 이미 팔려 나간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산 저질 콩 42t이 수입업자들에 의해 국산으로 둔갑한 뒤 시중으로 흘러나간 사실이 최근에서야 세관 당국에 파악됐다.

광주남부경찰은 15일 폐기 대상 계란을 무더기로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 가공업자 신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계업자 7명, 제과업자 5명, 계란 가공업자 1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나주, 함평 등지 양계장에서 생산된 '불량 계란' 1500만개(914t·22억80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돼 폐기해야 하는 계란을 액상계란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계장 주인들은 가공업자에게 이같은

'불량 계란'을 시중 가격(4000~5000원)보다 저렴한 1000~2000원에 판매했다. 가공업자는 불량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 광주와 전남·북의 제과업체에 1판(30개 들어)당 2000~2500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과업체는 이렇게 넘겨받은 계란을 원료로 사용, 빵과 과자를 만들어 전국 30여개 대리점과 대형마트, 급식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공업체는 계란 가공 관련 허가를 받았으며 품질 검사를 받을 때는 정상적인 계란으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계란 가공업체에서 압수한 계란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최대 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광양세관은 지난 14일 보세운송 과정에서 고품질의 콩을 저급 콩으로 바꿔치기한 밀수업자를 적발했다. 밀수업자 황모(49)씨와 운송업자 정모(58)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부산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콩 105t(6억원 상당)을 광양항으로 보세운송하는 도중 비밀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저질 콩과 바꿔치기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이 지난 10일 대장균으로 범벅된 '불량계란'을 가공하는 광주 소재 계란 가공업체를 급습한 장면. 업체 직원들이 폐기처리돼야 할 계란의 껍데기를 분리시켜 액상계란으로 만들고 있다. <광주남부경찰 제공>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콩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가공용이라며 kg당 2800원인 중국산 고품질 콩을 수입해놓고는 비밀창고에서 가격이 고품질 콩의 25% 수준인 저질 콩과 바꿔치기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등이 고급 콩을 저질 콩으로 바꿔치기한 이유는 48%에 달하는 콩 수입 관세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용으로 수입할 경우 3%로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세관

당국은 설명했다. 이들은 바꿔치기한 중국산 고급 콩은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저질 콩은 콩가루로 제조해 유통할 예정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으로 무려 42t의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오염 계란 3분의 1가격에 대량구입 가공·제과업체 거쳐 국민식탁으로

불량계란 어떻게 유통됐나

당국 느슨한 감시에 허술한 법규도 한몫

대장균이 최대 5배 이상 초과 검출된 '불량 계란'이 무려 9년간 유통돼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양계장 업자와 축산물 가공업자(계란 가공), 제과업체가 저마다 양심을 내다 버리고 이익을 좇은데서 비롯됐다. 이들을 감독해야 할 광주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과 느슨한 법규가 업자들의 빗나간 양심과 맞물리면서 불량계란은 유통 사슬을 타고 불량계란(빵·과자)로 변해 '안전한' 먹거리로 둔갑했다.

1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소재 계란가공업체인 A, B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나주, 함평 등 전남지역 양계장 7곳으로부터 깨지거나 분변 등으로 오염된 계란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가격은 30개 들어 한 판당 시중가격(4000~5000원)의 3분의 1 수준인 1000~2000원으로 양계업자, 계란 가공업자 모두 만족스런 거래였다.

계란 가공업자는 시중 가격의 3분의 1에 계란을 공급받고, 양계업자 또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는 무려 9년간 지속됐다. 이 기간 거래된 불량계란만 무려 1500만개(914t).

계란 가공업체에게 간 불량계란은 형태

로 가공된 뒤 유통 사슬을 타고 옮겨갔다. 10kg단위로 비닐 포장된 뒤 김치통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광주·전남·전북지역 제과업체 3곳으로 가 빵과 과자를 만드는 원료로 둔갑한 것이다.

제과업체 측도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1판 2000~2500원)에 액상계란을 사들였다. 이후 제과업체는 밀가루 등 정상원료와 불량계란을 혼합시켜 빵, 과자를 만든 뒤 전국 30여개의 대리점(남부 및 급식업체)과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양계장에서 폐기돼야 할 불량계란이 계란 가공업체(2곳)와 제과업체(3곳), 전국 대리점 및 대형마트 등을 거쳐 국민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업자들의 빗나간 행동이 9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감독해야 할 당국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여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상(12조3항) 계란의 품질검사 주체가 '업체'로 규정돼 있는 등 허술한 법규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업체들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정상 계란을 검사기관에 가져가 의뢰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불량계란 파동은 양계장, 계란 가공업체, 제과업체의 빗나간 양심과 허술한 법 규정, 당국의 느슨한 감시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청렴 골든벨' 올려라 15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제1회 도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에 참가한 북구 공무원들이 환한 얼굴로 정답판을 들여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사건조사 981건... 영상녹화는 0건

광주고검 영상녹화실 3개 불구 인권침해 예방 소홀

광주고검이 최근 5년간 1000건 가까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 조사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혜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2011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모두 981건의 사건 조사를 했다. 하지만 영상녹화 조사는 0건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고검은 149건, 대구와 부산고검 9건, 대전고검 8건 등이었다.

영상녹화제도는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 투명성 강화, 피조사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다. 263억원을 들여 전국 827개 영상녹화실이 설치됐으며 광주고검도 3개를 갖추고 있다. 서울고검에 4개, 부산고검에 3개, 대전과 대구고검에는 2개의 영상녹화 조사실이 설치됐다. 지검, 지청까지 합한 영상녹화 실시율은 2011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5.7%, 7.8%, 10.2%, 13.3%, 15.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혜철 의원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만큼 영상녹화를 장려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벌초객 차량 노력 상습 절도

○~고향인 영암군에 있는 부친의 산소를 찾다가 길가에 세워진 벌초객들의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가 쇠고랑.

○~15일 영암경찰청에 따르면 구축된 조모(66)씨는 지난 8월 9일 낮 12시에 순천시 상사면 노동교 앞길에 주차된 A(55)씨의 화물차 뒷유리를 깨뜨리고 현금 11만원이 든 가방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영암, 보성, 장흥, 보령 등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조씨는 지난 2008년에도 동종 전과로 붙잡혀 지난해 출소했는데, 경찰에서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부친의 산소를 찾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보자 나도 모르게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됐다"라며 때늦은 후회. /영암=대성수기자 dss@

회사 사정상 급매, 펜션·전원주택단지 **최고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리모델링 후(1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낙찰 - 14억 9500만원(7명 응찰/2등 - 14억 9100만원) 등기비 - 7000만원 명도비 - 2000만원(5명) 기초공사 - 3000만원(운석공사/벌목 등) 기타 - 1500만원(대청소 등) 총 - 16억 3000만원
- 급매 - 17억 5000만원 대출 - 12억 5000만원(2.1%, 월 219만원)
- 실제 인수금액 - 5억원 조건 - 9월 23일까지 계약 후 10월 23일까지 완불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1년 후 대출 20억정도 가능 조정없음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유동자산	유동부채
2014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13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12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11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10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9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8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7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6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5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4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3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2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1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2000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9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8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7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6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5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4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3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2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1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90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9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8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7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6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5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4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3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2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1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80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9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8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7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6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5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4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3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2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1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70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69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68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67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66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65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64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63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330,796,000원	1,498,497,000원
1962년	2,783,538,410원	3,000원	65,711,000원	1,330,796,000원	1,498,497		